

2025년 2분기

# 동남권 인구동향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현황과 정책 이슈를 한눈에!

2025년 4~6월 호 Vol.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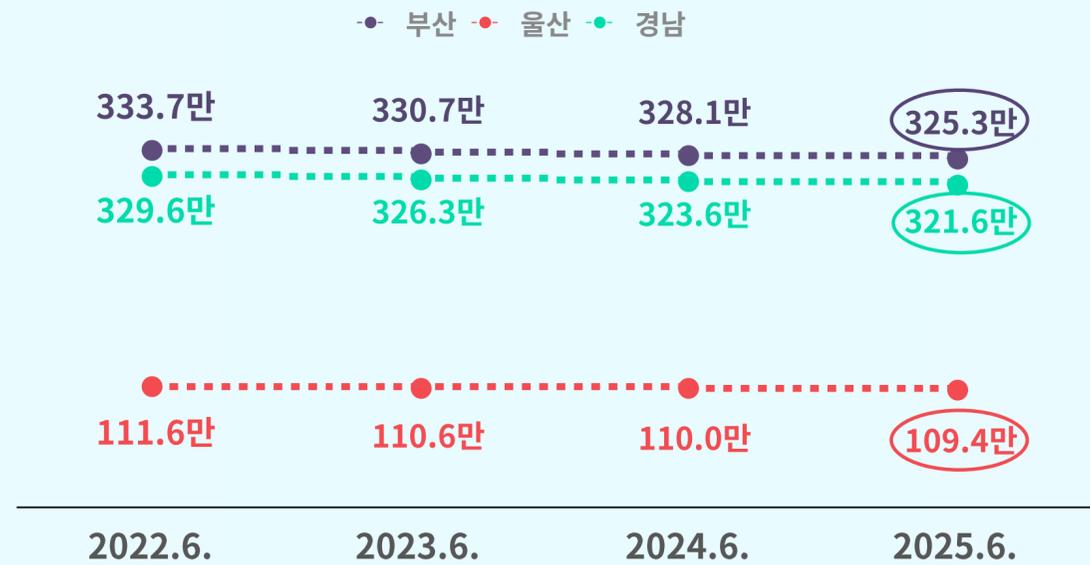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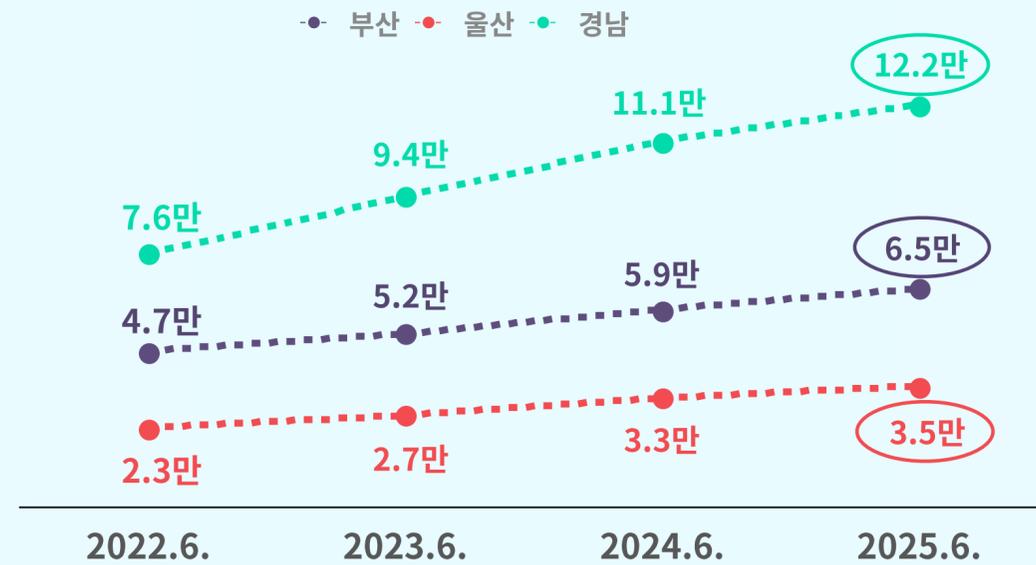
- ✓ **총인구**는 부산 325만 3천 명(전년동월 대비 ▼27,919명), 울산 109만 4천 명(▼6,639명), 경남 321만 6천 명(▼20,119명)
-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

### 내국인 추이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외국인 추이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주) 외국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를 합한 수치

## 출생, 사망

- ✓ 출생아 수는 부산 3,559명(전년동분기 대비 ▲287명), 울산 1,422명(▲73명), 경남 3,474명(▲34명)
- ✓ 사망자 수는 부산 7,577명(전년동분기 대비 ▲719명), 울산 1,794명(▲171명), 경남 7,591명(▲712명)

### 출생



2024. 1분기

부산	3,272명
울산	1,349명
경남	3,440명



2025. 1분기

부산	3,559명
울산	1,422명
경남	3,474명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인구동향조사는 '25년 1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잠정치를 사용함

### 사망



2024. 1분기

부산	6,858명
울산	1,623명
경남	6,879명



2025. 1분기

부산	7,577명
울산	1,794명
경남	7,591명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인구동향조사는 '25년 1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잠정치를 사용함

## 인구이동

- ✓ 순이동자 수(전입-전출)는 부산 -3,704명(전년동분기 대비 ▲38명), 울산 -1,280명(▼387명), 경남 -707명(▲1,386명)
- ✓ 부산은 주로 서울·경남으로 순유출 되었고, 울산 및 경남은 서울·경기로 순유출

### 순이동자 수



2024. 2분기

부산 -3,742명

울산 -893명

경남 -2,093명

2025. 2분기

-3,704명

-1,280명

-707명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순유출 상위 시도

\* 2025. 2분기 기준



1순위

부산 서울(-1,166명)

울산 경기(-362명)

경남 서울(-681명)



2순위

경남(-1,071명)

서울(-330명)

경기(-533명)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부산

### '25.2분기 주요 정책 이슈

#### 1 "부산 신중년 일자리 올해 2500개 만든다" (국제신문 / 2025-04-03)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50~69세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490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힘. 퇴직자 경력을 살린 취업 지원, 인턴십, 유연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신중년의 계속 고용과 노후 소득 보장을 추진**할 계획.

#### 2 "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청년 머무는 도시 만든다" (연합뉴스 / 2025-06-25)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6월 25일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부산진구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함. 청년이 직접 비전과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시는 향후 5년간 총 1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 주요 사업으로는 **서면·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함.

#### 3 "부산시, 세대 맞춤형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뉴시스 / 2025-06-25)

부산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 정책을 고령층 특화주택인 '시니어희망더함주택' 공급으로 고령층까지 정책을 확대**하고, 공급 물량 확대와 입지 다양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사업 범위 확대, 건축 제한 완화, 건립 비율 개선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7월 조례 개정 후 시범사업을 공모**함.

## 부산

## '25.2분기 주요 정책 이슈

## 4 "만화 특화·폐교 활용...부산 공공도서관 속속 개관" (부산일보 / 2025-06-12)

부산시는 이달과 다음달 당감도서관과 연제만화도서관, 덕천도서관이 잇따라 개관한다고 밝힘.

시는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소통, 창작, 성장을 돕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함.

## 5 "외국인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시행" (국민일보 / 2025-04-03)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2일 시행됨.

부산의 경우,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반도체 및 이차전지 관련 학과 외국인 유학생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됨.

## 6 "부산 해운대구, 인구 감소에도 거주 외국인은 증가세" (연합뉴스 / 2025-05-21)

해운대구는 전체 인구는 감소했으나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유학생 안내문 배포, 외국인 노무 상담실 운영, 관광 통역 안내원 채용, 세계문화축제 개최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1 "울산시, 올해 1713 청년가구에 주거비 지원 '지역 정착을'" (오마이뉴스 / 2025-04-08)

울산광역시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안정 지원에 집중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026년까지 청년희망주택 150호를 새로 짓고, 올해는 1713 청년 가구에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 울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 중임.

2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 본격화...사업 시행자로 울산도시공사 지정" (뉴스1 / 2025-06-16)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추진함. KTX역세권융합지구에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창업 후 보육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맞춤형 특화 주거를 공급한다고 밝힘.

3 "울산 중구, '영구적 불임' 예상 땀 난자·정자 동결·보관비 지원" (뉴스1 / 2025-04-29)

울산 중구보건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를 한 차례 지원할 예정.

4 "울산시,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조선일보 / 2025-06-02)

울산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함.

이를 위해 '어르신 교통카드'를 6월 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며, 1950년 7월 이전 출생자가 1차 대상임.

이 정책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5 "동구 3곳 '도시개발' 착수...인구유입 기대감 솔솔" (울산매일신문 / 2025-05-25)

울산 동구의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동구에서는 화정1지구와 방어화정지구까지 총 3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착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대 7,500명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중.

6 "울산 동구 외국인 1만명 시대 ... 외국인 정착에 힘쓴다" (국민일보 / 2025-04-24)

울산 동구는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주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착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힘.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다국어 소식지 발행, 통·번역 서비스, 주민 교육, 외국인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외국인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함.

## 경남

### '25.2분기 주요 정책 이슈

#### 1 " '인구 늘리겠습니다' ... 창원특례시, 생활 속 인구정책 공감 토크 펼쳐" (아시아일보 / 2025-06-25)

창원시는 '생활 속 인구정책 공감 토크(Talk)'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힘.  
시민들에게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상담·근로·문화·생활 지원 정책을 소개해 지역 정착을 도움.

#### 2 "창원에 동남권 첫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경남신문 2025-05-19)

동남권 최초의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가 7월 창원에 문을 열어, 2027년까지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운영됨.  
센터는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상담, 유산·사산 예방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 심리·정서 통합지원을 본격 추진함.

#### 3 "합천군,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대한경제 / 2025-06-18)

합천군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4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힘.  
합천읍 중심지에 10층 규모 30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인근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등과 함께 청년활력타운 조성을 목표로 함.

## 경남

### '25.2분기 주요 정책 이슈

#### 4 "하동군, 디지털 복지 실현... '스마트 경로당 30곳 시범 도입'" (뉴시스 / 2025-06-17)

하동군은 디지털 복지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 확산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30개 경로당에 스마트기기와 안전장비를 설치할 계획임.

75인치 TV, CCTV, 화재·가스 감지 센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 어르신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병행함.

#### 5 "양산시, 경남 첫 임산부 예우·지원 조례 마련한다" (양산신문 / 2025-06-02)

양산시가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

지금까지는 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초기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과 관련한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임산부들은 양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6 "경남 고성군, 생활등록제에 발맞춰 청년 사업 선제적 추진" (이뉴스투데이 / 2025-05-21)

경남 고성군은 '생활등록제' 도입 방안에 맞춰 '생활인구'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힘.

'고성청년예술촌', '촌캉스', '워케이션' 등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